

-(사회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션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토론자 두 분께서 오고 계시는 중인데 우선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님, 오픈넷 이사이시기도 하고요.

박경신 교수님의 발제를 30분 정도 듣고 그다음에 각 토론자분이 한 10분 정도씩 토론한 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경신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세요.

-(박경신) 인터넷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UN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FG를 만들어서 각 나라별로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1995년 이후로 보면 많은 시민 단체들이 원래부터 있었지만 디지털 인권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그 전 기술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기술들과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 인권단체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보호하려고 하고 UN에서도 KrIGF 행사를 하도록 독려할까?

그것은 바로 힘 없는 개인도 국가처럼 레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도록 해준다.

TV, 방송망을 통하지 않고도.

TV, 신문을 통하지 않고도 한 개인이 자신의 주장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 그럴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2012년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 날 때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소통이라는 건 오프라인에서 뭐 연령, 사회적 지위, 성별 이런 위계질서를 극복하고 평등하게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중에서 각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에게 한꺼번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각 개인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는.

지금은 TV, 신문을 이야기하지만 각 개인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인터넷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각 개인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어떤 구조에서 각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 파란 점이 각 개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각 개인이 모두와 직접 소통하려면 중간에 TV나 신문, 뭐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려면 어떤 구조에서 가능할까요?

1번, 스타, 2번 풀리 커넥티드, 3번 링.

어떤 게 가능할까요?

2번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2번은 지금 6명인데 6명이 직접 소통하려면 몇 번 연결해야 하나요?

15번. 어떻게 아셨죠? 이건 수학 정석에 나오는 건데.

이거 월드컵 예선할 때 리그 하려면 5팀이 있으면 몇 번 경기해야 하는지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면 1억 명이 서로 직접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억 곱하기 1억 마이너스 원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야 기본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1억 곱하기 1억 번의 연결을 서로 하려면.

여기서 인터넷의 발명이 있는 겁니다.

이 발명이 특허 안 된 것은 인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의 발명은 뭐냐 하면 각자가 서로 발신자, 수신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각자 다른 발신자, 수신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파란색 점들이 각자 발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발신한 것을 주소로 보고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을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저수지부터 저기 불 난 집까지 사람들이 쪽 줄을 서서 양동이로 물을 뜨면 계속 옆으로 전달해서 결국 불을 끄게 되죠.

인터넷은 바로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컴퓨터들이 각자 자기 메시지만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메시지도 보내주자.

궁극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Z라는 지점까지 한 업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마치 전화해서 A점에서 Z점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A부터 B는 누가, B에서 C는 누가, C에서 D는 누가.

다 나뉘서 함으로써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비싼,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옆에 있는 링, 저렇게 하면 6번 연결하면 되죠.

6번만 연결하고도 모두가 자신의 메시지를 다른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그런 약속 하에 모든 컴퓨터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 없이 모두 옆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전달하는데 누구 건 전달 안 하겠다.

어떤 콘텐츠는 전달 안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전달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시스템이 깨지게 됩니다.

또 긍정적인 거, 이걸 과금이 된 패키지면 전달하고 안 된 거면 전달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달의 조건이라는 게 생기는 이상 게이트키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상부상조, 모두와 모두가 소통하는 인터넷 구조가 마비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가 자기 옆에서 받아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만 공짜하면 모두가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인터넷의 기본 구동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망중립성입니다.

즉 모든 라우터들이 전달할 때 전달 여부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망중립성을 경제적으로 공식화하게 되면 바로 정보전달력은 없다.

터미네이션 피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걸 터미네이션 피라고 합니다.

터미네이션 피라는 건 뭐냐 하면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전달해주기 때문에 저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터미네이션 피는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종량제도 있을 수 없고요.

종량제도 사실 없는 게 원래 기본이고 데이터상한제도 없는 게 기본입니다.

전기, 수도는 전달하는 업체가 있고 여러분이 쓰는 전기를 한 업체가 만들어서 주면 여러분이 다 씁니다.

한 업체가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기 책임지죠.

하지만 인터넷은 제가 어떤 데이터를 썼을 때 책임지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잘게 쪼개져서 여러 업체가 상부상조 하에 여러분까지 데이터 전달이 됩니다.

모바일은 하나의 셀타워에 몇 명이 달라붙어서 쓸지 모르거든요.

한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바일에 있어서는 종량제도 인정되고 데이터상한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정보전달로는 없다.

어떤 말과 같냐 하면 돈을 많이 내면 더 빨리 전달해준다, 이 원칙도 안 된다는 겁니다.

패스트 라인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더 많이 접한 망중립성의 공식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의 기본 구동 원리에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쓸 때 여러분이 내는 돈은 도대체 뭐냐.

이건 접속료입니다.

접속료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어찌 됐든 인터넷이라는 어떤 컴퓨터의 접속 시스템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여러분의 컴퓨터가 ICP/IP를 하도록 하고 누군가 전선을 연결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직접 하세요.

자기 컴퓨터 가지고.

그러면 여기 망은, 이게 인터넷 연결 방식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갑자기 인터넷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로드들 중 한 군데만 가서 연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연결하면 여기서는 조건 없이 전달해주기로 모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달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나사하고만 연결이 되면 나사 컴퓨터가 TCP/IP를 하게 되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뭐 화성에서 인터넷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연결을 1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연결 유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접속료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내느냐, 사실 접속료도 무료로 할 수도 있죠.

왜? 저 한 사람이 저렇게 연결되는 데 가담함으로써 저만 이득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이득 보잖아요.

접속이란 어차피 쌍방향이니깐.

제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쪽에 100만명이 있고 저는 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연결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접속료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KT, SK에 내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KT, SKT 이미 연결된 이용자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접속료는 누가 누구에게 내는가, 살펴 보십시오.

전 세계 인터넷이 다 저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전 세계 컴퓨터랑 연결하고 싶어요.

제가 연두색 셔츠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꼭대기에 있는 티어1에 돈을 내고 연결을 사겠죠.

티어1은 티어2하고 연결하는데 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티어 2, 노란색.

돈을 내겠습니까? 아 내겠습니까?

내겠죠.

티어2는 지금 다른 티어를 통해서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티어2는 돈을 내게 되죠.

티어2는 티어1에게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티어1이 연결하는 다른 게 10몇 개 되잖아요.

티어2는 티어1 연결 안 해도 별로 자기는 큰 로스 없다고 생각하면 연결 안 하겠죠.

이게 상호 접속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접속료는 더 많은 연결성을 가진 곳에 낸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다른 원리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 접속료, 이용료는 돈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삼모사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접속료는 이웃에게만 내면 되는 거고 이용료는 발신, 수신자가 자기의 신호가 거쳐가는 길에 다 내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의 자유,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

더욱 평등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과 왜 연결되는지 설명드리자면 도서관에 책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책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서관이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주장을 펼치려고 책을 썼어요, 도서관에 맡겼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빌려.

도서관이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해요.

이게 망 이용료 개념이죠.

제 책을 통해서 제 메시지가 도서관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니까 네가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네가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동의하고 더 많이 받아보고 한다고 해서 돈을 낸다면 혁명이 어떻게 가능하고 의제 설정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또는 좋은 비디오를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을 이용하든지 유튜브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죠.

텍스트는 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 더 많은 사람이 내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저보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 메시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메시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어떤 메시지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인터넷은.

그래야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에 기여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웹사이트 방문하는 게 실제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웹사이트 카피가 HTML로 쓰여진 카피가 여러분 컴퓨터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데이터를 올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인터넷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료에 대해서, 그런데 망 이용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로 국내를 대상으로 정부나 망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망 이용료라는 말은 외국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번역어 찾아 보세요, 망이용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만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이버, 다음보고 망이용료 많이 내라고 했었죠, 무임승차한다.

요즘에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나 하면 구글이든 어디든 여기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서 저기까지 가니까 티어2 노란 티어2가 저기 KT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티어3가 SK브로드밴드, LGU+ 생각하시면 되는데 티어2, 3 통해서 다 전달되니까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건데 이걸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구동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망이용료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자기를 거쳐갔다고 해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결국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아시겠지만 본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뿌려서 CDN을 통해서, 이걸 본 서버에서 저기까지 선이 있냐 하면 그건 아니구요.

선이 있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망을 통해서 혼잡하지 않을 때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한국에서 접속을 할 때 원래 서버까지 가서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많이 걸리니까 자주 쓰는 정보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최근 망 이용료에 관한 논란은 뭐냐 하면 이게 차별이다, 그래서 코리안 CP들 네이버와 다음은 KT에 많은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망이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안 내고 있다.

그런데 원래 안 내는 게 맞죠.

대신 KT와 접속을 하면 이걸 내긴 내야 합니다.

이 접속료도 내야 하고 다음, 네이버도 KT에 접속료 내야죠.

둘 다 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차별이라고 할 때는 같은 상품을 가지고 차별을 이야기해야 하겠죠.

그런데 보면 CDN이 필요한 건 하늘색, 저 경로의 접속만 필요한 거고 지금 다음, 네이버가 내고 있는 접속료가 많은 이유는 티어2에 돈을 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걸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개가 다른 상품인 거죠.

여러분도 다 사고 있어요.

한 달에 2, 3만 원 내고도 전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망 사업자들이.

상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론이라는 건 사실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접속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인터넷의 구동 원리가 그렇다는 것하고 실제로 망중립성을 규범으로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인데 인터넷이 그렇게 구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까지 있었던 인터넷처럼만 구동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앞으로는 다른 식으로 구동하게 하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새로운 방식의 뭐 상부상조 이런 거 안 하고 구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그걸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인터넷 구동을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망중립성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망중립성을 폐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실제로는 기존의 인터넷 규정 원리를 바꾸는 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망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 시장의 경쟁상황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인터넷 접속료를 묻는 겁니다.

상호접속료를 비교해 보면 2018년도 데이터 기준인데 한국이 1메가바이트, 1Mbps상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이렇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아마존 클라우드로 자꾸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존도 당연히 KT, SK로부터 사야죠.

그런데 싸게 사서 재판매를 하니까 아마존으로 빨리 가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하려면 저렇게 비싼 가격을 내야 합니다.

전용 회선과 비교하더라도 KT, 1Mbps상 월 85만 원, SK브로드밴드 10 Mbps상 월 3633만 원, LGU+는 10 Mbps당 월 419만 원.

이 나라는 100메가바이트, 저거의 10배인데 1000불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10배 정도 빠르는데 가격은 4분의 1, 낼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한 상황에서 제로레이팅이라든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과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망중립성의 기본은 적어도 종량제, 데이터 상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제로레이팅은 뭐냐 하면 종량제, 상한제를 유지하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풀어주는 거예요.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없애주는 게 제로레이팅입니다.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시장지배를 다른 상황으로 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7년도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2명 중 1명이 제로레이팅시 이통사를 갈아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도 제로레이팅을 하면 36.4%가 이통사 갈아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통사 선택할 때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선택할 때도.

예를 들어 11번가, 쿠팡을 선택할 때도 이 사람들은 11번가 접속하면 무료니까 제로레이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망 사업자가 자기 콘텐츠, 자기 계열사 콘텐츠의 인기를 더 높이는 이런 것들이 제로레이팅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조심해서 유의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1G, 2G, 3G, 4G는 같은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시간별로 쪼개다 나중에 코드로 쪼개고 그다음 다시 한번 쪼개고 해서 지금 1G부터 4G까지 발전해왔던 건데 지금 5G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 한꺼번에 데이터가 지날 수 있는.

차로 이야기하면 차선이 10배, 내지는 이론적으로 100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5G의 길이 열리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바로 그만큼 데이터가 대역폭이 남으니까 이 대역폭에 패스트 라인을 만들자.

그걸 만든다는 건 속도를 빨리 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신호는 전부 다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차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 자동차 신호만 가지고.

어떤 차선에 대해서는 특정 신호만, 어떤 차선은 특별한 AR VR 이런 것들만 가도록 하는 차선을 따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그 차선은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나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 대형 병원들이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나눠진 차선들은 나머지 차선에서 아무리 혼잡이 발생해도 그 차선 자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신호가 지연 없이 빨리 왔다갔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물론 처음에 5G 생기고 얼마 동안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갑자기 차선이 10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선 몇 개를 자율주행으로 해놨다고 해서 저희 인터넷 쓰는 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선이 늘어나던 소프트웨어 쓰시는 분들이 그걸 쓸 수 있는 앱들을 만들겠죠.

일반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일반인들의 사용량도 늘어날 텐데 그때는 마치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이코노미석은 딱딱 차 있는데 앞에 1등석은 텅텅 비어도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그때 화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아무리 일반인들의 소통이 혼잡이 있어도, 느려져도 다른 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인터넷을 풀로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시그널이 더 생명을 다투는 거니까 빨리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제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앱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세월호 터졌을 때 뭐로 했습니까?

각자 재난 대응 앱을 들고 다니다 그거로 통화했나요?

5G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더 우리 나가야겠다, 소통했을까요?

아니죠, 일반 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했습니다.

실내에서도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서로 위험지역 뭐로 연결했냐 하면 트위터로 했습니다. 일반 인터넷도 프리미엄 서비스만큼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자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패스트 라인을 까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선 토론자 네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사정 때문에 늦게 오고 계시는데 먼저 송봉화 네티스 대표님이십니다.

최민오 보안컨설턴트님이십니다.

그리고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님이십니다.

이희정 교수님은 곧 오실 거고요.

그러면 먼저 앉은 순서대로 송 대표님부터 토론을 10분내외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봉화) 제가 신논현하고 논현이 헛갈려서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KT에서 23년을 근무했고 그다음에 7년 플랫폼 개발을 했었고 2년 동안은 제 사업인 스타트업 비슷하게 네티스 사업을 하면서 빌딩 하고 있는 이름은 송봉화입니다.

그래서 통신사하고 CP하고의 어떤 관계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상호접속제도 개정할 때 엄 과장님 전임 송 과장님이실 때 1년 반 동안 킥오프 활동을 했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약자, 통신 3개사 하면 대기업이잖아요.

정부와 어깨를 맞추고.

그런데 일반 중소 CP는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 다음 날 문을 닫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 교수님, 제로레이팅 때문에 포럼에 많이 참여했는데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엄 교수님도 방대한 결과물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힘 없는 사람들 목소리가 자꾸 열렸을 때 올바른 정책을 구현구나. 거 같아요.

매우 양쪽에 감사한 입장이고요.

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차별할 때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같은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은 실제 유튜브 아닌 건 KT, SK 포트 접속료를 줍니다.

유튜브인 CDN만, 비디오만 프리캐시라고 해서 네이버는 그것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이버도 그중 몇십 프로가 CDN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토종 CD 네트워크가 CDN입니다.

20년 가까이.

그런데 KT, SK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벌써 세 번째 일본한테 매각당하기도 하고 차이나 캐시 센터한테 매각 당하고며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네트워크 접속료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되게 싸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KT, SK 전체 빌딩을 살 수 있어요.

접속료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의 50% 수준입니다.

클라우드 옆에는 항상 CDN이 따라다닙니다.

그 CDN을 자기 CDN 판매하면서 CD넷은 가격이 7, 60%밖에 안 되는 거죠.

토종은 3계열사의 망접속료, 아마존한테 물려서 결국 중국한테 팔렸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2G, 3G, 4G, 5G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통신사가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절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광대역폭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5G까지 왔는데 결국 뭐냐 하면 주파수 경매를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주파수에 대한 건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그들의 기술을 디플로해서 그걸 잉여대역폭이라 하면 약간 오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KTX의 특급실, 버스의 우등.

이 세 가지를 보면 사회보편화 인정되고 있어요.

우등버스를 보시면 여전히 그 차선 배차만 동등하게 해준다면 우등 탈 사람은 타고 조금 기다렸다 버스 마시고 일반 버스 가는 겁니다.

세 개의 종류를 봤을 때는 5G는 경직된 게 아니라 진짜 혁신적 기술 간담회는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가 된다면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토론하려고 합니다.

비록 해지됐지만 0.7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각 통신사 가격은 다른데 정부가 공교롭게 3개사의 망에 대해서는 상한가 가격을 제시했어요. 메가당 7불.

3개사는 내가 너희 회사를 봐서 트래픽을 내 망에 전달할 수 있지만 LG로 보낼 때는 당연히 정부가 인정해준 7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 회선료가 다른 상태에서 우리도 망중립성 가서 3개사는 더 이득을 취한다면 약간 너무 욕심이 많은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망중립성에 대해서 박사님이나 보시면 되게 망에 국한해서 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통신사는 영리합니다.

망내에서는 절대차별하지 않습니다.

비차별입니다.

그런 기술 이 있어도요.

이건 최선형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SK, KT, LG는 그 앞단에서 마케팅 시장 지배력으로 차별화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접근성을 SK 집까지 내 망을 통해 해준다면 돈을 10불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CP는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나한테 안 되면 너는 SKT로 가라고.

그렇지만 작은 CP들은 서버가 5개 있습니다.

5개를 3개사 나눈다 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서버가 수십만 대예요.

이미 그들은 3개사에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상호 접속에 대한 아까 마지막 의제가

상호접속이 잘 됐냐 못 됐냐 의제에 저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망 내에서는 차별화, 비차별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눈에 보이는 차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로레이팅, 그다음에 CP들의 가격 차별,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이런 우등, 특급, 주파수가 국민 자산이라는 여러 가지를 봐서 제가 토론회 하면서 경험한 걸 말씀드리겠지만 양쪽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고 공정하게 됐을 때 우리 인터넷 발전은 박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의 일반적인 원래 오리지널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이어서 발표 토론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발제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잘 메모하시고 토론 끝나면 발제자 분께 5분 정도 시간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민오 보안컨설턴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최신오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작년에 들으신 분들 있으면 사과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방, 건물 물, 특히 이 방의 출입문을 제가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소유한 문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제가 갖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여쭙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들은 무료로 들어올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 입고 오신 분들은 5만 원, 제가 아예 모르는 분들은 100만 원 지불하셔야만 이 방을 나갈 수 있다면, 제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으신지.

더 나아가서 현재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건물, 도로, 출입문 모든 것들이 통행 같은 건 무료로 하고 나가는 것들은 제가 돈을 매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나갈 때는 어렵게 하면.

일단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민영화 이후에 통신사들의 독점적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상호접속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 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신자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최근에 과기부, 전 미래부가 개정했던 것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발신 부분은 기존 초기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달리 보면 정부기관이 규제를 통해서 통신사들의 이익을 확보시키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망 사업자들이 서로 전송하게 된 트래픽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이유로 필요 없었던 내용이 개정 이전 내용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서로 보내는 트래픽 양만큼... 보내는 것이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냐고 물음을 주시면 첫 번째로 발신자를 정의하는 거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제로 제가 해외에서 지인한테 소포로 얻은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게 집으로 전달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해외 지인이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소포가 이동한 것일까요?

배송료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적으로 변경된 항목은 종량제라는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량에서 정산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 또한 개정 목표와 동떨어지는 역할인데요.

예제로 좀 전에 출입문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방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화재 때문에 10초 안에 이 방을 나가야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출입문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였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서둘러야 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통행 흐름, 출입 관련된 부분들은 양을 기준으로 책정되기보다는 시간 개념이 항상 포함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몇 명이 출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개정 전에 있었던 거고요.

이 방에서 나간 동료들이 몇 명 있는지 나갔던 인원의 숫자만큼 바탕으로 정산이 책정되는 거고요.

기준은 결국 출입문 추가 설치 이런 논의도 쪽 동떨어지게 설비 투자 필요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측정을 불가능하는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새로이 생겨난 것들은 애초 목표했던 것과 같이 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더 많은...

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의 사람들에게 서비스 업체를 콘텐츠를 전송하게 될 시 당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트래픽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송, 어떤 분들이 전송하는 쪽보다는 받는 쪽이 이득인 사업.

출입문에서 들어오는 건 무료, 나가는 건 유료.

이건 인터넷 쌍방향 개념이라 모순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방향성이 특정 사업군을 통해서 생겨난 건 더욱더 모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이용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사례처럼 각 방 사업자가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또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에 무조건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 결국 해외사업자들의 국내 서비스 동기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자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해외로 나가게 됐을 때 각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망 사업자 서버를 설치해야 것으로.

정리하자면 관련해서 역차별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해외사업자, 국내사업자 역차별 논의는 사실상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인터넷 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망 사업자들간의 협상력과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 국내에서 망 사업자와 관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다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국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트래픽을 고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국내 이용자들한테 국내 서버 연결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연결까지 담보하고, 망 사업자들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역으로 국내에서 망 사업자들의 설비를 두고 있는 게 해외 이용자들을 유치하게 되었을 때 트래픽의 이익을 연습니다.

또한 이미 비정상적인 국내 망 이용률을 고려해 볼 때.

정부 기관이 나서서 해외 사업자들의 망 이용료 협상을 이루어내서 각종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경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마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이 시험 기간 전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망 사업자들은 이제 국내 대형 사업자라는 구조의 역차별 구조 논의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자와 스타트업과의 역차별.

뭐 사용자와의 역차별.

이런 논의를 하나씩 국내 생태계 전반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광고 시간 증가, 서비스 사업의 증가, 선택권 저하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물론 기형적인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걸 지불해 가면서 사업 유지를 할 사람이 남아 있다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통신사 계열사 및 관계업자가 통신하고 관계 없는 곳에 역차별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미 통신사들이 마케팅 및 광고에만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통신사들의 배당금 및 성과급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상호접속 고시 개정은 비합리적인 정상 기준을 규제를 통해 도입시킴으로써 생태계 전반의 저하, 절진 변화와 갈라파고스와의 담보로 망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망 중립성 시작의 폐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사용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자간 차별적인 서비스 이용을 담보로 추가적으로 이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양면시장화 또는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도 망 사업자가 이용료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되듯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업 초기 이용료 감면, 무료 전략 이후에 어느 정도 독점 상황이 구축됐듯이 그 이후에는 양쪽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독점을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논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건물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 카페 사업주 가게 옆에 건물주의 가족인 같은 업종 카페를 차리게 된다면 어떻게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물주 가족의 카페는 제로레이팅 사례죠.

임대료를 내않거나 할인 받는 상황에서 하고 이 상황에서 카페 사업자가 건물주 가족 카페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벌어들인 임대 수익보다 카페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익이 많다면 더 지불하지 않았을까.

-(사회자) 정리해 주세요.

-(최민오)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임대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런 3, 4개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들이 담합했다면 건물주들이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처음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다음 토론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님이십니다.

-(이희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좀.

-(사회자) 그러면 엄열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10분 안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열) 안녕하세요? 통신정책경제과장 맡고 있는 엄열입니다.

오늘 항상 존경하는 박경신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가 많죠?

망 중립성, 그다음에 ISP, CP, 접속료, 망 이용, 제로레이팅.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서 어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말씀을 많이 주시는 상호, 인터넷 접속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 시장에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통신, ISP라고 불리는 이른바 망 사업자와 망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그리고 그 CP의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일반 이렇게 크게 상정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호접속고시는 이른바 KT나 LGU+, SKT 간 트래픽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속료, 망이용대가를 혼재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접속료라고 하면 망을 가지고 있는 ISP간의 정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산료가 16년도에는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트래픽이 많고 적은, 서로 왔다갔다하는 트래픽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최민오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트래픽을 누가 유발하느냐의 문제는 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소포 이야기를 하셨지만 소포를 부치는 사람이 그 소포 트래픽을 유발한 걸까요?

아니면 소포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유발한 걸까요?

넷플릭스를 내가 쓴다고 하면 넷플릭스가 망을 위반한 걸까요?

인터넷이 전화망과 달리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트래픽을 보내는 쪽, 트래픽을 보내는 쪽이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6년도 이전에는 서로 KT나 큰 사업자들 망사업자들 간에는 정산하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6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트래픽 관련 부분을 정산했습니다.

KT가 LG에 보내는 양이 100이면 반대로 LG가 KT에 보내는 양이 50이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은 또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자와 달리 그 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소비자이신데 망 이용대가를 ISP한테 지불하고 있는데 이 ISP 간 서로 정산 요금을 CP의 망 이용대가를 올리는 이른바 전가시키는, 비용을 전가시키는 데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활용됐다는 주장을 하시고 망이용대가가 16년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래서 망 이용대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신 거고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중

소 CP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사업하기 어려워졌다, 이게 비판의 주
논란이고 이 부분이 있는 겁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망 이용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망 이용료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주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쪽 말씀드리겠는데 자료가 조
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KT나 뭐 이런 별도 월 단위 10메가 얼마 이런 게 있는데 그
게 사실 이용 약관에 있는 가격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메가 단위로 팔지 않고 기가 단위로 팝니다.

월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른바 인터넷 시장 속에서의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재 CP나 뭐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나서 해야
하겠다.

만약에 상호 접속 고시 접속료, 쉽게 이야기하면 도매.

도매시장이 있고 소매시장이 있는데 도매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매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2016년도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봐서 필요하면 상호접속 고시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의 시
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 제로레이팅, 망중립성 말씀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도 5G 협의체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주셨는데 특히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5G.

아까 고속도로로 비유해 주셨었는데 통신 사업자들이 그 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5G는 굉
장히 주파수가 크고 하니까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각종 서비스를 얻을 수 있
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른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인데 저희가 보도 자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쓰니
까 국어 발전 연구소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

주파수 쪼개기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써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를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일정 나눠진 주파수는 자율주행차에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나
망중립성, 혹시나 차단금지, 패스트 라인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와 연계되지 않을까
우려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계속 주시는 거고 이쪽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프리미엄 망과 같은, 지금 쓰시는 여러 가지 IPTV라든
지 VIP라든지 이런 것은 프리미엄 서비스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하는 것도 산업발전에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대표님처럼 양쪽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어서 실제적
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상호 발전의 측면과 다각도로 봐서 해야 할 거 같습니
다.

이런 부분도 연말까지 저희가 좀 전문가를 이용하고 있어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로레이팅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로레이팅도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특정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아무 생각 없으면 되게 좋은 거고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열 앱에만 연결되어서 쓸 수 있게.

제가 3메가 쓰는데 그거 다 썼을 때 보너스로 주는 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레이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후적인 측면을 봐야 할 거 같아요.

해외 사례도 그렇습니다.

사전적으로 법적으로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으로 위반되는 나라가 두 개 있어요어아.

칠레랑 네덜란드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도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이런 부분을 금지했지만 지방법원에서 맞지 않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망중립성이 위배된다고 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하게 해소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까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계열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확답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이희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희정)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런 논의들은 제가 전에도 유사한 논의에 참여해 봤었는데 뭐 실제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상호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해야 하는데 박 교수님께서 출장가셔서 제가 잘 모르는데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상호접속고시가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사실 한 3번 정도, 제가 여러 자리에서 박 교수님 발표도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그 구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스스로 주관적인 확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매우 일반적인, 제가 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 중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생각되는 것은 박 교수님께서 주신 발표 자료에 보면 망중립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터넷의 구동 원리가 설계된 그런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것에서 원리가 우리가 실제로 실제로 특정 사업자가 망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위를 일반 이용자와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CP들이 이 구조하고 그걸 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인터넷의 이용 모델이다,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

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질문입니다.

박 교수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이렇게 옆사람들한테 보내고 서로 간... 하지 않는 모델로 시작되었다는 건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신 자들한테 문제 삼는 그건 결국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서 망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라 각자가 그 부분을 다 설치하고 있어서 넘겨주고 있는 거라면 인터넷의 아키텍처의 구동 원리와 이런 서비스 모델이 같은 윤리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가 각자 거기에 N분의 1로 기여하는 그런 식의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의 구동원리라는 것과 서로 누군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또 통신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투자해서 각각 수익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용료를 내고.

그런식의 돈, 실제로 재료를 본다고 하는 부분이 다르고 수익 얻는 근거도 다 다른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있었던, 각자 N분의 1로 만들어서 모여서 협동하는 정확한 권리 체계나 이런 게 없이 조금씩 다 기여하고 하는 식의 모델을 이런 상황에 접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초창기에 아이디어나 이런 게 문명사적으로 일을 가지고 하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게 최대한 그런 상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에 관련된 세부적인 룰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각자가 뭔가 부당한 부분이 다르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닌가.

결국 그런 점을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많이 요즘에 드리는 거는 건, 제가 11-13년도 사이에 망중립성 논의를 볼 때부터도 어려웠던 문제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는 일반 저처럼 인터넷을 사용해서 뭔가 제가 끌어오기만 하면 일반 유저하고 그걸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CP라고 우리가 흔히 카테고리들을 만드는 그 부분이 이용자 지위라는 점에서 공통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거 같기는 하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난 그 기간 이후에는 지금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큰 글로벌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냥 여전히 거기에서 소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초창기에는 모든 이용자들이 평등하게 되죠.

형식적 별등으로 충분했다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는 그중에서 큰 사람은 너무 커졌고 작은 사람은 작은 상황에서 이제는 질서가 재편되려고 하는 요청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재편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장기적 거버넌스에서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문제를 변론으로 하고 일단 상황 인식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전제하고 세부룰을 짤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미용점에서 누가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 건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

다.

똑같이 취급하는 원리를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 문제가 있다고 보

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확실히 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신념으로 굳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그 발생한 트래픽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제로레이팅뿐 아니라 망 중립성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 규제고요.

뭔가 시장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것들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 같은 데에서 갈 수 있는 경쟁법 규제는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망중립성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 규제의...

저는 망중립성 규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

망중립성 안에 기술적인 차별을 넘어서서 가격도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들어오게 되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거고 그게 아니라 망중립성은 망중립성대로 분리해내고 이런 이용료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테마가 아닐까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더 놀리나, 개발해야 할 것은 인터넷상에서 활동은 아까 최민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소비, 공급 구조랑 다른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에 어떻게 대응시킬 건지, 새로운 룰을 만들 때도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로 만드는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기존 모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존 모델에 그걸 대응시킬 때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광고를 봐준다는 거 아니면 시간을 뭔가 거기에 소비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EU에서는 제가 알기로 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에 소득이 발생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경제 개념을 가지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라.

조세법 자체에 대해서 다른 개념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에 있는 규범을 다시 거기에 맞게 재구성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초창기에 그냥 통신으로만 하던 인터넷의 구조를 지금 현재는 유지하기 어렵고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룰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지금 원래 저희 시간이 45분에 세션이 끝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마지막 세션이라 뒷 세션이 없으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토론 시간을 가져야 할 거 같고요.

그 전에 일찍 나가셔야 하는 분들은 도중에 나가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진 찍으셔야 하나요?

그러면 박 교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딱 3개만 받고 한 번에 다 말씀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쓰신 분들?

크게 말씀해 주시면.

-(플로어)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아까 5G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도 신문에서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망중립성과 5G의 슬라이싱 문제는 제 생각에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5G는 편도 8차선을 구축할 수 있는 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큰 여러 개의 차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나누지 않자는 건 1차선을 그대로 쓰자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뭐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중간중간에 막히는 구간에 가변차선을 쓰거든요.

큰 망을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차선을 다르게 했다고 망중립성하고 크게... 뭐.

오히려 이용자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엠블런스도 같은 속도로 가고 트럭도 같은 속도로 가면 그게 망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차별화의 망중립성을 위반할 그런 요인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사회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코멘트는 망중립성과 5G의 네트워크와 크게 관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송봉화) 패스트 라인 비웠을 때 구멍났을 때와 1라인 구멍났을 때 어느 쪽 먼저 수리할 거예요?

-(플로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LTE망은 가상으로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5G망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쪽이 바쁘다고 하면 이쪽을 줄이고, 소프트망이기 때문에 소프트적인 평선으로 운영하기를 때문에 종류였되 늘렸다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유선망에서도 이미 가산망이 있어요.

-(송봉화) 저도 해봤거든요, 골드 실버 브론즈 해봤는데 구현이 안 됐지만 시스템을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망중립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지 않았던 거 같아.

그런 차원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플로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아직 구체적으로 개념도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사회자) 다음에는 패널로 초대를...

이따 최민오 컨설턴트가 저기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두 개 더 받겠습니다.

...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박 교수님께서 토론자 분들 질문 메모를 하셨을 텐데 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1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신) 우선 제로레이팅이 해외에서 규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규제 안 되는 이유는 통신사가 자사 제로레이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네덜란드 사람 말씀하셨는데 SK가 제로레이팅하고 이런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SKT가 제로레이팅 해서 결국 그 힘으로 업계 2,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점 규제법 위반이라는 거고, 이게 결국 규범으로서의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로레이팅은 제로레이팅을 통해서 실제 다른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낮춰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이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격을 보여드렸는데 전혀 과장 없는 텔레 지오그래피라고 우리나라 망 사업자들도 상호 접속료가 얼마나 물어 보면 다 보는 자료가 텔레 지오그래피 자료입니다.

18년도에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뭐 비싸기만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싸게 판다, 이걸 정부에서 그러면 전광이 이거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든지.

그런데 저는 그것도 믿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격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망 시장은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매우 경쟁이 낮은 상태입니다.

즉 독과점적인 상황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견이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로레이팅을 할지 패스트라인을 할지 독점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경쟁 상황을,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매우 안 좋아요.

망 사업자들이 서로 어차피 경쟁을 안 해요.

그 상황에서 경쟁을 더 낮춘 게 뭐냐 하면 16년도 발신자 종량제입니다.

서로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쪽이 받는 쪽에게 돈을 주도록 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킬러 콘텐츠, 킬러 CP들을 유치할 유인이 없어져버렸어요.

왜?

킬러 CP를 유치하면 많은 사람이 그걸 돌려고 데이터를 가져가겠죠.

킬러 콘텐츠를 유치한 망 사업자는 계속 다른 곳에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유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KT, SK고. 한 쪽만을 유치해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 가격을 세게 부르는 겁니다.

16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가격이 떨어져왔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간 계속 연결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떨어지는 게 중단된 게 2010년이었요.

이희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사전, 사후 규제가 있어서 뭐 망중립성이랑 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아도 결국 인터넷 망중립성은 위반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말씀하시지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T가 11번가와 제로레이팅 했죠.

카카오보이스 등 했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나왔을 때 스마트폰 트래픽 차단했죠.

이거 전부 다 망중립성 위반했던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P2P도 차단하고 이거 다 망중립성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정) 저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마무리 1분씩 토론자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화) 텔레 지오그래피는 전 세계, 매년 상품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 거래량을 주기 때문에 텔레 지오그래픽에 대한 가격 정보는 아시아, 미국 다 받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본 사람인데 2016년 전에는 KT가 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돈을 받았습시다.

2016년도에 공정하게 발신자 종량제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11년부터 KT를 계속 써왔었습니다.

16년도에 이 제도가 바뀌면서 베타1, 베타2 이런 제도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3개 사업자 망 내에 이걸 만들면서 상대 사업 밑에 있는 티어2, CP들, 유저에 대한 모든 댓 글까지도 손을 댔습니다.

전체 통신 시장에 망 접속에 대한 개설인지 변경인지, 아직도 개설이라고 저는 하지만 저는 변경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변경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장에 실제 적용이 됐냐 안 됐냐를 봤을 때 2010년 예산 하고 15년 예산을 150%, 200% 더 잡았습니다.

그것도 결렬돼서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CP들은 빠졌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불만일 때.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가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은 CP들은 결집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적용됐고요.

그다음에 세종, 드림라인, 티브로드 이런 사업자들은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들 협의체는 자기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미뤄졌습니다.

이것이 점점 늦어질수록 작은 CP를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다음 날...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엄 과 장님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오) 나중에 전가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가가 된다면 문제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뭐 이미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해서 판단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래픽 변경이 됐었을 때 가격 상한선 기준에 대한 책정을 양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계신지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공개 통신 시장을 경쟁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회사 특혜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은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계시는지.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출입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100만 원, 80만 원, 뭐 100만 원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차별은 논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차별 부여를 하면서 서비스 사업과 편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방지하려고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희정 교수님.

-(사회자) 지금 마무리 발언이라 질문 자제해 주시고.

-(최민오) 망중립성... 네.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에 텔레 지오그래피 관련된 거 말씀드린 거 사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좀 띄워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팩트 체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사실 제가 문제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보면 상호접속료 자료인데 제가 보니까 미국, 유럽은 사실 이게 트래픽 허브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 일본과 싱가포르 비교 자료인데 저희는 9로 되어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낮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평균값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한국, 미국, 유럽은 평균값을 쓰셨는데 미국과 싱가포르는 가중치 값이 있거든요.

실제 가중치 비교값이 아니라 평균을 보면 미국이 5달러, 싱가포르도 6달러 육박합니다.

그런 자료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한국과 한국 가중평균값 내리면 6 정도 돼요.

한국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거 이용약관을 P2P 이용약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 받아서 업데이트 받은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잘 일을 못하고 있는데 KT나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자료 주지 않고 이게 옛날 자료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가바이트로 팔거든요? 그렇게 파는데 여기 기가바이트 팔면 SK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0을 곱해야 하는데 월 3억이예요?

아니거든요.

실제 가격은.

실제 가격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월 1억, 3억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제로레이팅 관련해서 해외 규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 (박경신) 자사가 있다고요?

- (엄열) 네, 다 있어요.

- (박경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빼놓고 하셨잖아요.

- (엄열) 뭘 빼놓고요?

- (박경신)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서 자사 제로레이팅, 규제하려고 했었잖아요.

- (엄열) 그러다 틀어졌죠.

- (박경신) 그렇죠?

- (엄열) 네, 그 부분 말씀 안 드린 건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

- (이희정) 없었다고 하시니까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 (사회자)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지어야 하니까.

- (엄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2016년도 이후에 상호 용량 기반으로 해서 무정상이었던 것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올랐다는 입장...

- (최민오) 요청을 했던 지점이었고 전가가 된다면...

- (엄열)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서 만약 이 부분에서 전가될 위험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혹시 이희정 교수님, 알겠습니다.

사실 몇 시간을 더 토론해도 끝이 안 날 거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7시 3분 종료)